

<한국 거시경제정책의 현황, 과제 그리고 미래>
토론 요지

한국경제학회 하계 정책심포지엄
2015. 8. 27

김진영
(건국대 경제학과)

<발제문의 의의 및 주요내용>

- 장기침체 우려가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보다 20년 앞서 유사한 경험을 한 일본의 국가 재정운영에서 교훈과 시사점을 찾아보고
- 현재 우리나라 재정정책을 효율성, 형평성(소득재분배), 안정성(경기조절과 재정안정) 등의 측면에서 평가
- 일본의 20여년 전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으나 (다행히도) 그들보다 상황이 나쁘지 않음
- 조세와 지출에서 재정정책에 따른 재분배 효과는 커지고 있으며, 경기 대응은 적절하였지만 최근 경기 대응 과다 경향, 2008년 이후 재정안정성에 문제

<(매우) 동의하는 부분>

- 항구적인 재정증가 요인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세입증가로 대응해야 함
 - 일본의 감세와 복지지출 증가 조합
 - 한국의 유아 보육/교육 예산 확대와 세입 증가 노력 미흡
- 최근 재정의 경기 대응은 과할 수도 있음
 - 큰 효과 없이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

<토론자 생각>

- 전반적으로 1980년대 이후 재정운영은 큰 문제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
 - 대체적으로 시대적 요청에 잘 대응해 옴
 - 노동, 자본, 소비 과세 mix에서 성장 친화적인 쪽으로 유지
 - 최근 소득불평등에 대비하여 재분배 쪽에 약간 더 무게를 두는 모습
 - 재정건전성은 최근까지 비교적 잘 유지해 옴
- 다만, 재정건전성은 발표문에서도 보듯이 2008년 이후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임
 - 성장률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인 가정도 문제
 -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공기업 등에 전가된 부채 문제도 심각

<토론자 생각 - 재정정책의 경기 대응>

- 경기 대응에서 재정정책은 비상수단으로 남겨두어야 하지 않을까...
 - 우리나라의 발전단계에서 (물론 여전히 성장에 목 마르겠지만) 3~4% 성장률을 낮다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
 - 잠재성장률과 실제성장률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의 거시적 효과(경기조절)에 대한 큰 기대는 하기 어렵다고 생각됨
- 조세는 자주 바꾸기 보다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
 - 안정성, 예측 가능성이 중요
- 경기대응보다 고용친화적 정책이 기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...
 - 기존의 고용창출 및 유지 정책에 대한 평가가 필요

<토론자 생각 - 성장친화적 재정정책>

- 현재도 조세정책은 성장을 크게 저하시키는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됨
- 재정지출에서는 개선 여지가 좀 더 있음
 - 고도성장기의 산업진흥정책 틀에서 벗어날 필요 있음
 - 예: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 정비, 인적자본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투자성 지출, 초중등 및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방식

<토론자 생각 - 재정 건전성>

- 일본과 같은 경험은 피해야 하고 피할 수 있음
 - 지나친 낙관에 근거한 세출 계획 자제
- 재정건전성에 대한 학계의 강력한 요구와 정책담당자들의 태도가 유지되기를 기대함
 - 1980년대 제로베이스, 예산 동결 등은 귀중한 경험
 - 재정건전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

<토론자 생각 - 기타>

- 고령화와 관련된 의료비 지출 증가 요인과 기술발전으로 인한 의료비 감소 요인을 잘 감안한 건강보험 운영에 대해 많은 경제학자들의 관심 필요
 - 의료뿐 아니라 각 정부 지출 부문의 효율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, 평가가 필요
- 큰 정부, 작은 정부와 같은 논의보다는 능력 있고 (부패하지 않은) 정의로운 정부 추구가 더 절실한 과제
- 민도 아니고 관도 아닌 기관의 확대에 경계, 통제의 필요성

<질문>

- 인플레이션 목표 유지가 디플레이션 방지라는 의미가 있는지? 그렇다면 디플레이션을 경기변동의 원인으로 보는 건지 결과로 보는 건지?
- 우리나라 조세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어떤 건지, 최근의 효율성을 어느 정도 희생하는 일련의 변화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?